담양군 체류형 관광 활성화 나섰다

담양온여행협동조합과 협약
'우리 함께 여행할래?' 이벤트
장성군과 체결 협약 공동 추진

정철원(가운데) 담양군수와 담양온여행협동조합 관계자들이 17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최근 담양온여행협동조합(이하 담양온여행)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담양온여행은 담양군이 운영한 '슬로시티 서포터즈 육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 13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마을 단위 관광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슬로관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참여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과 장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 모델을 함께 발굴·운영하고, 지역경제를 공동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담양온여행은 교류 관광 이벤트 '담장 넘어, 우리 함께 여행할래?'를 본격 추진한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담양군과 장성군이 체결한 관광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 추진하는 이벤트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관외 거주자가 담양군과 장성군의 지정 관광지 8곳 중 1곳을 방문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지참해 담양관광정보센터 또는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관광지 목록과 인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http://www.damya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슬로시티 담양의 정체성을 알리고, 내륙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라며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담양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지역 관광에 활력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군 취약계층 무료여행
100명…1인 18만원 지원

함평군이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여행 지원사업 참가자를 8월6일까지 모집한다.

함평군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 100여명에게 여행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18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제공하며, 장애인은 동반자 1인 포함 최대 36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여행 신청은 8월6일까지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군민들이 활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청준 문학관 설계안 당선작.

장흥군 이청준 문학관 건립 속도…설계안 확정

회진리 일원에 889㎡ 규모 건립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미백' 이청준 작가의 문학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문학관 건축 설계공모를 실시해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이청준 작가의 문학세계와 주변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장흥 출신의 소설가 이청준(1939~2008)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고, 문학 전시와 교육,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학관은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산 26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889㎡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는 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건축 설계, 구조, 시공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돼 작품의 창의성, 공간 활용성, 지역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선정된 당선작은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건축적 공간으로 풀어낸 점에서 예술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청준 문학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작가의 문학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함과 동시에, 방문객이 문학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시 '다울림 창작소' 김근태 작가 첫 입주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

나주문화재단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 '다울림 창작소'의 첫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개최해 예술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연다.

나주문화재단은 '다울림 창작소'의 첫 입주작가 김근태 작가의 오픈스튜디오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다울림 창작소는 죽림동 세광기업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장애예술인 전용 창작 공간으로 나주시 학생운동길 52-1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지역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김근태 작가가 첫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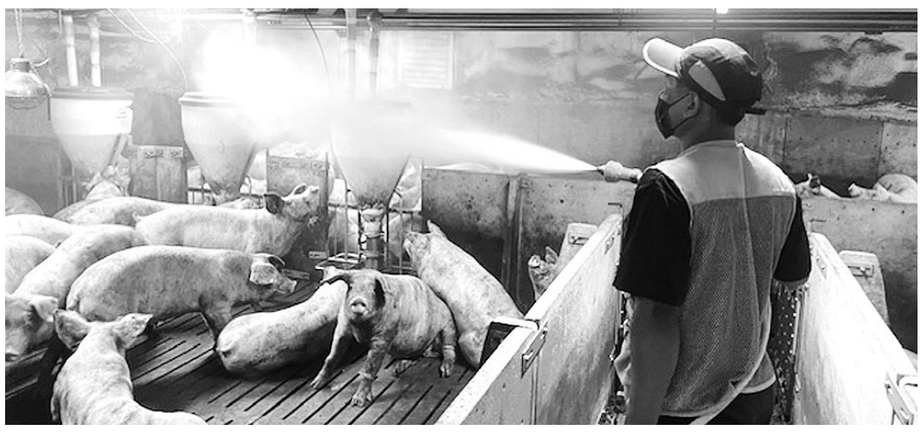
김근태 작가는 장애예술인이자 인권예술가로 비장애인이던 시절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겪은 이후에도 발달장애인과의 예술적 교감을 지속하며 따뜻한 색채와 진심이 담긴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 UN본부 초청 전시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활발한 국제 전시 활동을 펼쳐온 세계적 작가로 평가받는다.

나주문화재단 이사장인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울림 창작소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자립이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나주가 국제적 장애예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지역 농업인이 돈사에 악취 저감 미생물을 살포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유용미생물 축사 악취 저감 효과

미생물 공급 전년대비 5.4% 증가

화순군이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이 지역 축산농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는 축사 내부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범이다.

화순군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미생물 3종(바실러스 츄린기엔시스, 슈도모나스 카에니, 광합성균)을 2021년부터 지속해서 생산·공급해 오고 있다.

또 2023년부터 미생물을 활용해 양돈농가 자체적으로 현장 실증한 결과 유해가스가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바실러스 츄린기엔시스는 유기물 분해력이 우수해 축분의 부패를 억제하고, 슈도모나스는 악취 유발 물질을 직접 분해한다.

이와 함께 광합성균은 축사 내 유해가스 농도를 낮추고, 유익한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 가축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올해 상반기 악취 저감 미생물 공급 농가 수와 공급량은 1033명, 21.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66명, 20.3t보다 농가 수는 167명이 늘었다. 공급량은 5.4% 증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군, '이동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강진군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이동노동자를 위한 복합 쉼터 조성과 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버스터미널 2층 공간을 활용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교육·안전용품·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강진군은 지역 상권활성화, 반값여행, 연수원 천원택시 등 유입정책을 활발히 펼치며 관광객 유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의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해 왔다. 특히 전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주문·매출 1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배달·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성될 쉼터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배달·대리운전·프리랜서 등 관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